

# 광주역, 원도심 경제거점으로 다시 난다

1조156억원 재생 뉴딜사업  
2024년까지 창업지원시설  
차량정비기지 6만㎡ 부지에  
민자 유치 복합개발사업

고속철도(KTX) 송정역 일원화로 쇠퇴하던 광주역 일대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광주역 일대 약 50만㎡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창업지원시설을 세우고, 기차역과 쇼핑·주거 시설 등을 단일 건물에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민간자본 7000억원 등 모두 1조15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우선 올해부터 500억원을 투입해 문화콘텐츠산업 경제거점으로 삼을 창업복합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수화물 플랫폼 부지(6000㎡)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건물을 지어 청년 등 창업자들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만든다. 오는 2021년까지 창업 복합지원시설 등 핵심시설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주요시설 운영에 들어간다는 게 광주시 계획이다.

광주역 앞 광장도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상·증강현실(AR/VR) 지원센터, 미디어아트 창의산업, 창업자 지원주택, 지하철 2호선 등 광주역 주변의 다양한 정부부처 협업사업과 연계해 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현재 차량정비시설로 이용하는 부지(6만㎡)에는 코레일과 함께 2025년까지 업무, 판매·오락·레저, 주거·숙박, 문화·집회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민자유치 복합개발사업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 용산역처럼 기차역 기능과 쇼핑·오락·레저시설은 물론 오피스텔까지 단일 건물에 입주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코레일과 함께 대기업 등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합개발사업은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민간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역 일대는 도심내 터미널과 KTX가 정착하고 도심물류와 유통의 중심지이자 자동차, 생활공업, 건축자재 등 다양한 도심 제조산업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도심 산업구조 변화, KTX 미정차, 시청과 도청의 이전 등으로 유통인구가 급감하고 주변 숙박시설과 음식점, 상가 등이 문을 닫으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KTX 정차역이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되면서 광주역 이용객은 2014년 177만명에서 2016년 39만명으로 78%가 감소했고, 자연스럽게 운수·요식 등 상권도 쇠락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 센터장  
명지원씨 최종 선정  
5·18 고초 명노근 교수 딸



광주시는 광주트라우마 센터장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명지원(여·55·사천)씨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명씨는 신원조회를 거쳐 다음 주중 임용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명씨는 지난 2012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재직해왔으며, 현재는 센터에서 재활팀장을 맡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고초를 겪은 고(故) 명노근 교수의 딸이다.

광주시는 전임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직하면서 후임 센터장 공모에 들어갔다. 지원자 자격이 까다로운 탓에 1차 공모에선 지원자가 없었고, 2차 공모에선 명씨 홀로 지원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센터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재활 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직원과 조직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상근직으로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다.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하다. 연봉은 60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12년 10월 정부 정보보안서비스업으로 출범한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 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트라우마센터 직원 10여명은 전체가 기간제이며, 국립시설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아베 정권 경제보복 철회하라"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18일 오후 북구청 광장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 친환경쌀 서울 학교급식 인기...노원구 이어 도봉구 선정

전남의 친환경쌀의 서울 학교급식 공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 노원구 이어 도봉구 친환경쌀 학교급식 구매업체 4개소 공모에서 전남 업체 3개소가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곡성 옥과농협, 해남 인수영농협과 땅끝영농협이다. 서울 도봉구 소재 47개 학교에 연간 소비되는 친환경쌀 200여t을 공급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자율계약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3개 업체가 신청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평가단이 업체별 발표와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업체 공모 선정에서도 4개소 가운데 담양 금성농협 등 전남 3개소가 선정돼 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아 구매력 향상 및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급식에 전

국 최초로 유기농쌀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1번지의 명성을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은 물론 공공급식으로 연계하고 있어 친환경쌀 유통 활성화로 국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친환경쌀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국장급 퇴직 공무원 3명 전남개발공사 비상임 이사 선정

'낙하산·제식구 챙기기' 지적  
전남도 국장급 퇴직 간부 3명이 전남개발공사 비상임 이사진을 맡게됐다.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남개발공사 임명직 비상임이사로 법률·건축·경영·주거복지·회계세무·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6명을 선정, 임용장을 수여했다. 기존 비상임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된 데 따라 후임자를 선정한 것으로,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배수로 올라온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남지사가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남도 퇴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되면서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홍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건축), 배양자 전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주거복지), 이기환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경영) 등으로, 이들 외에 공인회계사와 전 특허청 사무관, 전 검

찰공무원 등도 비상임이사를 맡게됐다. 현재 전남도 공무원들로 이뤄진 당연직 비상임이사(기획조정실장·건설교통국장)와 감사(예산담당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이사진 중 6명이 전·현직 전남도 공무원인 셈이다. 전남개발공사 이사회가 이들 10명의 이사진을 꾸려지는데다, 예결산 승인 및 사업계획을 비롯, 조직 보수, 인사 규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당장, 전남도가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에 억지로 떠맡긴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도청 현안을 꿰뚫고 있는 만큼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남양·오송지구·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소방본부 전국 첫 '소방교육과' 신설

전남도소방본부가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소방교육과'를 신설했다. 향후 전남지역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최근 기존 소방교육대(7명)를 정원 30명의 소방교육과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소방인력 교육 업무에 들어갔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교육과 직제 신설로 향후 전남 소방학교 승격 및 소방인력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지속적 충원이 이뤄지면서 교육 수요가 늘어난 반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반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 소방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전남도 소방본부 설명이다.

도 소방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300억원을 투입, 명실상부한 소방인력 전문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방교육과를 중심으로 대대적 시설 보완·확충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팀 수준인 소방교육대에서 소방교육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여 재난 전문가를 양성, 도민 안전을 확보해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다슬기 40만 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18일 섬진강에서 구레 섬진강어족보존회 및 어업인 등과 함께 어린 다슬기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다슬기는 청정 1급수의 강, 하천 등의 자갈 및 암석 등에서 서식하는 담수산 패류다. 국내 하천에는 총 9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슬기와 참다슬기 2종이 섬진강에 서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다슬기 생산량은 789t

(74억원)이다. 전남 생산량은 19t(2억원)으로 3% 규모다. 국내서식 종류는 다슬기, 참다슬기, 염주알, 주머니알, 구슬알, 주름, 좁주름, 띠구슬, 꽃체 등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자원 회복을 통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시험·연구사업을 착수, 종자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구레·곡성지역에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